

鄭英昊(生物) 張世憲(化學) 趙淳阜(物理) 鄭昌熙(氣象) 金孝經(換氣)(以上서술大) 金正基(建築)

金山寺通信(一)

申 榮 勳

八月二十五日入札을 보아 世寶企業社(代表楊澈洙氏)에 二十九萬五千원에 落札되어 八月二十九日 契約을 하고 九月五日부터 着手하였는데 그후 계속되는 降雨와 木材購入難으로 延期되어 오다가 날이 들자 九月二十日부터 治木을 始作하게 되었다. 其間 建物の 内外를 살살이 調査할 수 있었는데 銘文이나 記錄은 發見할 수 없었고 단지 女莫斯瓦中에 「天啓元年辛酉三月日云云」 「康熙十九年云云」의 것이 混在하고 있음을 보았고 一층과 三층의 柱너 끝에 圓래 滑柱를 끼었던 구멍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알려졌고 아래층 동남우 滑柱의 초석아래 안상이 새겨져있는 다듬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부분에 한층 더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니 圓래 滑柱를 받쳤던 것을 후에 보수하면서 빼어 버렸고 滑柱구멍이 없는 柱너는 후보물임이 밝혀져서 이번 보수에는 보강하는 의미에서라도 모두 滑柱를 받치도록 하였다. 안상들은 빼어서 별치하도록 하고 다른 돌로 이부분을 메꾸도록 하였다.

大寂光殿의 基壇과 柱위에는 從來 基壇의 甲石(?)으로 使用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것들이 散하고 있으나 全貌를 알 수 없어 判斷을 하지 못하고 있다.

大寂光殿에는 「同治四年乙丑正月日 現王愼奉安子 深源庵云云」의 佛畫가 있으며 總高九九·七cm의 銅鍾이 一口 있고 後佛壁後面에 白衣觀音菩薩立像圖가 있는데 이는 無爲寺極樂殿·來蘇寺大雄殿·仙巖寺大雄殿 등에서 볼 수 있는 그것들과 같은 계통의 것이나 年代는 훨씬 떨어지는 듯이 보인다.

「金山寺誌」가 原來는 板本(?)으로 있었다 하나 지금은 없고 複寫紙로 複寫한 美濃野紙의 것만이 傳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梵鍾이 一口 있었는데 一口는 日帝時 供出하여 없어졌다고 한다. 덩그렁이 비어있는 鍾圖 앞에 碑身破片이 三片 있는데 其二는 南嶽大師碑이고 一片은 前後에 無一字이어서 누구의 碑인지 모르겠으나 側面에 浮彫한 龍脚을 拓本할 수 있었다.

方等戒壇을 寺誌는 惠恭王二年에 造成한 것이라 하나 믿을 수 없고 壇身에 새겨진 飛天像들을 倣 돌러가며 二十四枚 拓本하여본 結果는 高麗의 樣式이 多分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其外 幢竿支柱·五層石塔·六角多層塔·石蓮花臺座·石燈·慧德王師眞應塔碑는 俱存하고 있다. 寺誌에 記錄된 各庵址를 찾아 보느라 하였으나 徒勞에 그쳤고 山上의 石塔만을 돌아 볼 수 있었다.

九月十八日 金祥基博士·金斗鍾博士一行이 來寺하여 工事의 經過와 寺內의 狀態를 調査하였다. 筆者는 一行을 隨行하여 全南古蹟巡禮에 參加하게 되었다.

德美 金銅半跏思惟像의 左足과 蓮座

黃 壽 永

— 第三卷 第十一號 通卷二十八號 —

國內에서 傳世한 高約三尺의 金銅半跏像兩軀는 우리나라 三國時代 彫刻史上의 代表的 作品들이다. 그 中에서도 德壽宮美術館像(以下 德美像)은 近年에 美國뿐 아니라 歐州各國의 展示會에도 出陳되어 世界의 絶讚을 받은 바 있었다. 筆者는 數年來 이들 兩軀의 半跏像을 注目하면서 傳來地點의 確認과 그 樣式系譜 및 信仰의 背景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 對하여서는 장차 새로운 考察이 있어야 함을 말한 바도 있었거니와 ① 그같은 契機는 半跏思惟像의 新例가 國內에서 漸增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二一

滿二年前의 일이다. 一九六〇年十一月十日頃이었다고 記憶하는데 國立博物館에서는 歐州展示를 위한 包裝作業이 시작되던 날 午後 七時가 넘은 때이었다. 이 德美像과의 作別이 무엇보다 쉽습하였기에 崔淳雨兄께 부탁하여 包裝順位를 뒤로 밀고 故 全鏊弼先生과 함께 몇 時間 머무르면서 이 佛像의 細部를 조사하고 各部의 撮影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數年間은 이 作品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한 心情이 앞서기